

### 간절한 도움 요청에도 광주시·동구청·YWCA '수상한 침묵'

# 3번이나 버림받은 고아소녀들

부모·시설·지자체에 '상처' 인권위 권고 2개월 넘도록 보육시설에 대한 조치 안해 동구청, 학대 민원도 묵살 원생들 "우리 편 하나도 없다"

원시되거나 입원을 시도한 사실을 밝혀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인권침해'라는 결정문·공문을 광주시와 YWCA에 보내 해당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해당 시설이 주소지를 둔 동구청에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지시했을 뿐 해당 시설 조사나 피해아동 면담, 처리결과 점검 등 후속조치 등은 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시설에선 인권위 조사 내용 외에도 추가로 피해 아동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권위 공문을 받은 지난 7월 해당 사실을 알았으며, 인권위 결정문 내용 외에 다른 학대 피해는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29일 광주일보 기사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해 전수조사 등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는 말을 듣고 수사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의 공문을 받은 받은 동구청도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광주YWCA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데만 그쳤다. 동구청은 특히 인권위 권고에 앞서 해당 아동시설에 대한 학대 민원을 접수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해당 아동시설에서 퇴소했다는 한 어린이의 부모는 동구청에 보육시설의 인권 침해 관련 민원을 수차례 접수받았지만 매번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당 업무를 최근 배정받아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에 연락해 알아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로부터 받은 해당 아동시설 지원금 10억 1600만원을 광주 YWCA에 지원해 준 동구청이 사실상 관리·감독에 두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동구청으로부터 아동시설에 대한 조치를 통보받은 광주YWCA도 징계는커녕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광주 YWCA 측은 공문을 받은 지 2개월여가 흐른 지난달 10일에서야 이사회를 통해 인권위 결정문 내용을 잠시 거론했으며, 참석 이사 등에게는 "사실이 아닌 만큼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YWCA 회장도 이사회에 앞서 인권위 권고 조치로 개최한 해당 보육시설내 직원대상 교육에서 "인권위 결정문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광주 YWCA 서욱희 사무총장은 "이사회 등에서 인권위 결정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지만, 일부 참석자들이 듣기만 오해할 소지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동안 인권위 권고 내용을 지키기 위해 직원교육도 하고, 수차례에 걸쳐 회의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조치 이후 보호는커녕 이중, 삼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해당 보육시설 원생들은 "인권위 조사 이후에도 원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만, 누구 하나 우리 편이 없다. 갈 곳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밤 늦게 들어가 잠만 잔다"면서 "이번 일 때문에 시설의 눈 밖에 나 퇴소시 지원해주는 정액급(300만원 수준)조차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원생까지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페탕크 경기 아시나요 9일 광주시 서구 치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한페탕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들이 프랑스 전통놀이의 하나인 페탕크(Petanque) 경기를 시범해보고 있다. 페탕크는 가로·세로 4×15m 사각공간에 부송이라는 목표물을 두고 선수들이 교대로 금속공을 부송 쪽에 던지는 게임으로, 목표물에 가까운 곳에 공을 놓는 선수가 승자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코카콜라 광주공장서 노조원-경찰 또 충돌 8명 부상

코카콜라 광주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노조원과 경찰이 충돌해 양측 8명이 다치고, 2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9일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경 광주시 북구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농성 중이던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과 경찰이 서로 몸싸움을 벌여 화물연대 노조원과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분부장 등 2명이 다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도 3명이 다쳤으며, 코카콜라 물류 운송을 위해 차량을 몰고 공장으로 진입하던 비노조원 운전자도 몸싸움

에 휘말리면서 다쳤다고 경찰은 밝혔다.

몸싸움은 화물연대 광주지부 코카콜라 분회 소속 노조원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를 가로막자, 경찰이 이를 말리다가 일어났다. 경찰 측은 노조원을 말리던 경찰관이 폭행당해 의식을 잃어, 쓰러진 경찰관을 구하러다가 충돌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화물연대 노조원 A

(52)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연대단체 회원 B(26)씨를 붙잡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도 화물연대 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성장을 찾은 연대단체 회원 2명이 경찰과 충돌해 다치기도 했다.

한편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차량에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코카콜라 운송사 GU 측으로부터 해고와 다를 바 없는 배차 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달 17일부터 공장 정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2013년 이후 광주·전남 경찰 14명 순직

#### 공무 중 부상은 1139명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순직하거나 공무 중 다친 경찰공무원의 수가 11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제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9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광주에서는 5년 동안 경찰공무원 5명이 순직했고 602명이 공무 중 부상을 입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 직무 중 순직 경찰공무원은 9명, 공상자 수는 537명이었다.

순직 경찰은 경북이 총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3명, 서울과 전남 각 9명, 대구 7명, 광주와 충남 각 5명 등의 순이었다. 공상 경찰은 서울이 총 22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도가 1998명, 부산 641명, 광주 602명, 대구 546명, 전남 537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의 연도별 순직·공상 경찰은 ▲2013년 153명(1명 순직) ▲2014년 123명(2명 순직) ▲2015년 104명 ▲2016년 107명(1명 순직) ▲2017년 85명(1명 순직) ▲2018년 7월까지 3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에는 ▲2013년 98명 ▲2014년 105명(3명 순직) ▲2015년 113명(4명 순직) ▲2016년 108명(1명 순직) ▲2017년 73명(1명 순직) ▲2018년(7월까지) 40명이었다.

전국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은 82명, 공무상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은 973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순직 원인으로는 ▲질병이 48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18건(22.2%) ▲안전사고 7건(8.6%) ▲범인 피습 4건(4.9%) 이 뒤를 이었다. 공상의 원인은 ▲안전사고 4438건(45.6%) ▲범인 피습 2733건(28.1%) ▲교통사고 2310건(23.7%) ▲질병 256건(2.6%) 순이었다.

/박지영 기자 jkpark@kwangju.co.kr

### 자전거 음주 운전

#### 광주 첫 적발은 주한미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적발사례가 나왔다.

광주 서부경찰은 9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 준위를 조사하고 있다.

A 준위는 전남 오후 6시 10분경 광주시 서구 덕흥동 광주전남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길을 걸던 B(71)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A 준위는 자전거 여행을 하기 위해 광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A 준위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A 준위에게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광주에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술 취한 여승객 성폭행 미수 택시기사 실행...법정 구속

술에 취한 여승객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한 택시기사가 실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강간미수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41)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5시 35분경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B(여·20)씨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이후 B씨를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또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음주운전 의심' 경찰 출동하자 철로 한복판 차량 버리고 도주



음주운전의심을 받은 운전자가 철로 한복판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나, 화순경찰의 빠른 대처로 대형 열차 사고는 모면.

9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 28분경 화순군 한 도로에서 모닝 승용차가 차량을 갈지자(之)로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농주10에서 의심차량의 정차를 요구했으나 백암교차로 출구 방향으로 도주했다는 것.

차량 운전자로 추정되는 A(30)씨는 이후에도 농주면 백암리 경전선 철로 건널목에서 선로를 따라 300여m를 더 질주한 뒤 차를 놔두고 도망갔는데, 경찰 관계자는 "철로 한복판에 차량이 방치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으나 화순역 관계자와 견인업체 협조를 받아 1시간 20분만에 안전하게 승용차를 견인했다"면서 "운전자에 대해선 교통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